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탤런트 홍은희 '원더우먼' MC

탤런트 홍은희가 7일 오후 7시 첫 방송 예정인 MBC 예능 프로그램 '원더우먼'의 MC로 발탁됐다고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전했다.

'원더우먼'은 여자 MC 5명이 하루 동안 특정한 주제의 미션에 도전하는 방식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앞서 홍은희는 '삼색녀 토크쇼'와 '여유만만'에서 MC를 맡아 안정적인 진행 실력을 보여줬다.

현재 MBC 일일드라마 '살맛남니다'에 출연 중이며 오는 29일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남편 유준상과 함께 개막식 사회로 나선다.

'인생은 아름다워' 작가 김수현

“동성애 문제 지금도 시끄러운데 예전에 다뤘다면 큰일날 뻔 했다”

김수현(67) 작가의 SBS TV '인생은 아름다워'가 매회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선을 위협한다.

재혼 가정을 배경으로 평생 축첩을 한 시아버지와 동성애자인 큰아들, 중년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두 시동생, 재일교포, 낙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코믹 터치로 그리는 '인생은 아름다워'는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분명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동성애 코드가 연일 화제다. SBS에는 연일 황의전화가 이어진다고 한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는 항의가 거세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하는 편이다. 사회적 의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가족극에서 동성애는 한 요소일 뿐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갖나. 난 개네(태섭-경수)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다. 동성애자는 어느 집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아이다. 난 그들이 바람직하다고도, 이상하다고도 그리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지상파 TV에서 동성애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 대단한 파격이다. 젊은 작가들도 다루기 꺼리는 소재다.

▲예전부터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전에 다뤘다면 큰일 날 뻔했다.(웃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무서운 것이다. 돌 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쉽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항의가 들어온다고 유아유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슬그머니 접는 일은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족극에 투입할 의미가 없다.

-성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생략되고 처음부터 두 남자의 사랑이 그려진 것도 신선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도 있다.

▲사춘기 소년들도 아니고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재미없다. 그런데 뭘 걱정하는 것일까. 동성애자라고 하면 무조건 성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렇다. 동성연애자와 동성애자는 차이가 있다. 애들이 배울까 무섭다고 항의하는 분도 있는데 동성애는 배우라고 해도, 배우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선천적인 문제다. 그런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흑인을 차별하는 것과 똑같다.



“ 회당 원고료가 5천만원?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나 황당하다, 악플 달리겠네 ”

김수현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안타깝다. 동성애는 남녀의 사랑과 다를 게 없다.

-6명의 아내에게서 15명의 자식을 둔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과연 작가가 그를 용서할까도 궁금하다. 지금껏 김 작가는 잘못된 남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하. 그랬나. 용서라..용서라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 있지 않나. 늙고 병들면 기어들어온다고. 시아버지는 실제 모델이 있어 그런 설정을 했는데, 그분은 남자가 귀한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하더라. 가까운 지인의 아버지도 평생 접의 집에서 살다가 죽을 때 돼서야 분처한테 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지켜봐 달라.

-회당 원고료가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한테 확인을 했나? 황당하다. 참 재미없네. 악플 달리겠네. 그런데 배우들은 회당 1억 원 넘게 받아도 되고 작가들은 안되나? 배우들은 드라마의 어느 대목에만 나오지만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작가로 얘기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하는 것 같다. 다른 작가들이

좌절감을 느낄까 봐 걱정이고, 아무나 5천만 원 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야.

-막장 드라마를 안 쓰고도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쓰니 당연히 원고료가 최고를 달리는 것 아니겠나.

▲인간의 모습이 다 일그러지면 어떻게 하나. 방송국이야 시청률만 나오면 온갖 이유를 대서 그 드라마를 옹호하지만 그런 논리라고도 할 수 없다. 막장이 트렌드가 되면 곤란하다.

-트위터를 열심히 한다. 열혈 추종자들이 많다.

▲저녁에는 글을 안 쓰니까 그 시간에 주로 한다. 그래도 대놓고 글이 폭주할 때는 힘들 때도 있다. 답장을 때어먹고 있으면 찜찜하다.(웃음) 우연히 한번 들어갔다가 계속 하게 된다.

-에너지가 넘친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부분을 계속 차질없이 넘기고 있다.



송지효

'한밤의 TV연예' MC로 2년만에 복귀

“감 많이 떨어졌을텐데... 걱정도 되지만 설레요”

“2년 정도 쉬면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서른이 된 저와 스물아홉의 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무언가를 빨리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SBS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 연예'의 MC를 맡아 2년 만에 복귀하는 송지효는 SBS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긴장되고 설레다"며 소감을 밝혔다.

2008년 영화 '쌍화점' 이후 2년 만에 복귀한 송지효는 "저와 주변 분들을 생각하며 쉬는 시간이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유를 찾았다"며 "쉬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촬영 중인 그는 "사실 쉬는 동안 감이 많이 떨어졌다"며 "바로 반응이 오는 드라마보다는 몸을 풀면서 할 수 있는 영화를 복귀작으로 선택했고, 그전에 빨리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매주 시청자를 찾아가 수 있는 MC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송지효는 "생방송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되지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은 기대가 크고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며 "다른 분들과 빨리 친해져서 한밤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07~2008년 'SBS 인기가요'의 MC를 맡기도 했던 그는 "본업은 연기자이지만 MC도 매력 있다"며 "어떤 분야든 공부도 되고 추억도 쌓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면 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지출이본반	편입영어 1학년 1학기 수업을 이수하고 2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반
	분제자율반	1학기 1학기 수업을 수강한 후 2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반
편입수학	선형대수반	수학 1학년 1학기 수업을 이수하고 2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반
	미분적분반	수학 1학년 2학기 수업을 이수하고 2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반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학원을 원할 경우	편입학원을 원할 경우	편입학원을 원할 경우
대학편입 전문 교육기관	대학편입 전문 교육기관	대학편입 전문 교육기관
100% 합격률 보장	100% 합격률 보장	100% 합격률 보장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